

IV. 초기 기독교의 성경해석(3) 05



초대교회 교부들의 성경해석은
당대의 유대교 성경해석 방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호에서는
쿰란공동체와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성경해석 방법 및
1-2세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방법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3-4세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특히 그 중에서도
'안디옥 학파'의 성경해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한다.

- 편집자

IV. 초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3)

채승희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 역사신학

IV. 초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1. 1세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 a. 예수의 성경해석
 - b. 바울의 성경해석
2. 2세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 a. 영지주의의 도전: 발렌티누스, 마르시온, 프톨레미
 - b. 영지주의 도전의 응전: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테르툴리아누스
3. 3-4세기 기독교의 성경해석
 - a.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해석: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 b. 안디옥 학파의 성경해석

(지난 호에 이어 계속됩니다)

b. 안디옥 학파의 성경해석

알렉산드리아 학파 외 3-4세기 성경해석에 있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은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안디옥 학파이다. 시리아는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 대제의 장군들 중 한 사람이 건설한 도시로서 동쪽으로는 현재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서쪽으로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르던 곳이었다. 로마제국 시대에는 고대의 가장 번성한 도시들 중 하나로 교류가 많은 상업지로 유명하였다. 초기 기독교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철학적으로 플라톤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함께 발달한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환경에서 안디옥 학파의 신학과 함께 성경해석법이 발전하였다. 안디옥 학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경쟁적 구도를 가지는 학파였으며 성경해석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적 해석법과 첨예한 대응적 태도를 보였다.¹⁾ 아리우스와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준 루키안(Lucian)을 비롯하여 다소의 디오도르(Diodore of Tarsus), 몁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Theodore of Mopsuestia),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과 같은 대가들이 안디옥 학파의 성경해석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본 소고에서는 다소의 디오도르와 몁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만 논하기로 하겠다.

안타깝게도 안디옥 학파는 5세기 기독교 논쟁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인성과 신성의 이중적 본성의 그리스도를 말함)과 필연적으로 연루되어 많은 안디옥 학파들의 글들이 금서가 되고 역사의 뒤

1) 조셉 트릭은 이 둘의 관계를 서로 모순적인 경쟁 구도가 아닌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고 하였다. Joseph W. Trigg, *Biblical Interpretation*, 31. 트릭이 주장한 대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해석과 안디옥 학파의 성경해석을 극단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무조건 알레고리적 해석만 하고 안디옥 학파는 절대적으로 문자적 해석만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서로의 극단성을 비판했으며 어디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성경해석에 임했느냐에 따른 구분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로 숨겨져 버렸다. 그러나 자료가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소수의 자료들만으로도 안디옥 학파의 성경해석법이 얼마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것들과 대조를 이루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안디옥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대시했음이 그들의 글에 나타난다. 안디옥 학파에게 있어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경본문을 해석자의 상상 속으로 끌어들여 끝도 없는 환상적 이야기를 만들어 낼 위험성이 다분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분명 알레고리적 해석에는 조심성과 통제력이 주의됨에도 불구하고 주석가의 주관적 상상력이 남용될 여지가 다분하였다. 이에 반해 안디옥 학파는 성경본문의 문자적 기록들을 떠나지 않으면서 본문비평, 문헌학적이고 역사적인 연구에 주력하였다. 즉 안디옥 학파는 성경의 영적 실재의 철학적 분석보다는 헬레니즘의 수사학 전통과 그에 따른 성경언어의 이성적 분석을 강조했다. 안디옥 학파 모두는 성경은 본문이 말하는 더 높은 의미(a higher sense - 관상(觀想))를 말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그것을 *theōria*라고 불렀다. 플라톤이 사용한 더 높은 의미의 *theōria*라는 단어는 안디옥 학파가 문자 위에 신비한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믿는 은유적 해석법을 주장하는 자들을 대응하는 무기가 되었다. *theōria*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며 성경저자들의 언어를 바로 이해하고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학자의 진지한 노력을 통해 발견된다고 믿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언어’와 ‘역사’라는 요소를 영적 의미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만 인식한 반면, 안디옥 학파의 *theōria*는 여전히 사건의 충실한 서술인, 근본적인 역사(*historia*)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안디옥 학파의 성경해석법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적 해석보다 과학적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오늘날 성경해석법에 어찌면 훨씬 호소력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알레고리적 해석법을 멀리하기도 했다.

다소의 디오도르

다소의 디오도르(Diodore of Tarsus)는 『관상과 은유의 차이는 무엇인가?』(*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Contemplation and Allegory?*)라는 책과 시편 주석을 썼다. 디오도르는 이 글들을 통해 자신의 주요한 해석학적 원리들을 담아내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디오도르의 책은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안디옥 학파의 전형적인 비판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디오도르의 눈에 알레고리는 성경본문의 자리에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우화를 얹혀 놓는 것같이 보였다.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역사를 폐기시키고 본문과 전혀 다른 정황과 상황 속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메시지를 만든다고 하였다. 안디옥 학파도 물론 성경이 더 높은 차원의 의미 *theōria*(관조) 개념을 인정하였다. *theōria*를 인정하지만 이는 역사성을 고려치 않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theōria*는 성경언어 자체의 심오한 이성적 성찰로부터 보이는 정신적, 영적 의미이지 결코 문자나 역사성과 별개의 또 다른 의미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theōria*는 역사와 문자를 넘어선 무리한 우화적 해석으로 창조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히 문자적 의미(*lexis*)와 텍스트의 역사적 실체성(*historia*) 위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디오도르는 자신의 시편 주석의 서문에서 시편의 모든 시들은 시간과 상황들에 맞춰질 수 있다고 보았다. 시편은 시편기자가 처했던 본래의 역사적 상황뿐 아니라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역사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예언자적 문헌이라고 말했다. 시편 주석에서 디오도르는 역사적 상황에 충실한 사실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이 한층 깊은 차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시편의 시들은 독자들에게 교리적 가르침과 윤리를 가르치고 한편 고난 받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면서 역사성과 *theōria*의 긴장을 해소한다고 하였다. 디오도르에 따르면, 시편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는 관심사를 가장 잘 표현하였다. “우리 영혼은 시편이 놀라울 정도로 적합한 치료약임을 깨닫는다. 성령께서 온갖 종류의 인간상황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가장 복 받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 고통에 대해 적합한 말씀을 하신다. 고난 받는 사람은 이를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다.”²⁾ 만약 고통받는 인간의 영혼이 시편을 통해 위로받았다면 이는 고통받는 인간과 시편기자의 상황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 정합성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위로받는 이유이다. 디오도르는 사람들이 시편을 낭송하고나 묵상하면서 본문구절과 다른 의미로 본문을 이해하거나 원래의 단어와 문해석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이 위로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성경의 역사적 이해와 *theōria*는 대립관계가 아니다.” 디오도르는 성경본문의 가장 정확한 어원적 연구와 역사적 이해가 *theōria*를 찾는 근본적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³⁾

디오도르는 본문의 역사적 실체인 *historia*와 평이한 문자적 의미인 렉시스(*lexis*), 문자적 의미를 주의 깊게 해석해서 얻은 고양된 의미인 *theōria*, 그리고 은유(알레고리)를 구분하였다. 가능한 마지막의 은유적(알레고리적) 해석은 피해야 하는데 이는 앞의 세 가지와 전혀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해석자들이 알레고리라는 이름 하에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성경의 의미를 창조할 때 본문의 역사성은 망가진다. 알레고리적 해석을 근본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디오도르는 자연히 성경이야기 자체에 생긴 모형론을 파악하게 된다. 이를테면 가인과 아벨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모형이 된다. “가인의 희생처럼 유대회당은 거부되었다. 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듯이, 교회의 제사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

2) Diodore of Tarsus, *Commentary on the Psalms: Prologue, in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ed. 크리스토퍼 홀, 『교부들과 함께 성경읽기』, 이경식·우병훈 역 (서울: 살림, 2008), 298에서 재인용.

3) Froelich, trans. & e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86.

월절 어린양의 피는 예수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⁴⁾ 모형론(*typology*)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독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활동과 역사를 읽는 지평을 넓혀 가도록 인도된다.

한편 디오도르는 성경해석을 위해 성경을 참조해야 한다고 한다. 성경은 서로를 보완하고 증거하면서 더 높은 의미가 드러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헛된 상상’의 은유적 해석을 막아 준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적 해석가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할 때 알레고리적 해석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비유(알레고루메나, *allegorumenā*)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 .” 그러나 디오도르는 비록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바울의 알레고루메나의 사용은 알렉산드리아 주석가들이 말하는 은유로서의 해석인 고전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학파가 말하는 *theōria*의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들의 어머니들인 사라와 하갈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서, 바울은 더 높은 테오리아를 발전시킨다. 그는 하갈을 시내산으로 이해하며, 이삭의 어머니를 자유로운 예루살렘으로, 모든 신자의 미래의 어머니로 이해한다. 사도가 이러한 식으로 “본다(*theōria*)”고 해서 그가 역사적 이야기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누가 바울을 설득해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참이 아니라고 말하게 할 수 있던 말인가? 바울은 역사적 설명을 확고한 토대로 삼으며, 그 위에 그의 테오리아를 발전시킨다. 그는 바탕을 이루는 역사적 사실을 높은 차원의 사건으로 이해한다.⁵⁾

4) Froelich, trans. & e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86.

5) Diodore of Tarsus, *Preface to the Commentary on Psalm 118*, in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ed. 크리스토퍼 홀, 『교부들과 함께 성경읽기』, 이경식·우병훈 역, 304에서 재인용.

하갈과 사라의 이 같은 바울의 비유를 바울이 본문과 별개로 영적 의미를 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주석가들의 주장과 달리 디오도르는 철저히 바울이 본문과 개연된 높은 차원의 본문이해, 즉 테오리아를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안디옥 주석가들은 은유적 해석은 이데아계의 본질과 현상계가 구분된다고 하는 헬레니즘적 사고에 기인된다. 이는 성경내용이 서로 개연성이 없고 혼란스러우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론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과 사라의 창세기 이야기를 풀어 갈 때 사용한 알레고루메나(*allegorumenena*)는 철저히 문자적이고 역사적 의미 위에 세워진 테오리아이다. “바울은 역사적 설명을 확고한 토대로 삼으며 그 위에서 그의 *theōria*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역사적 사실을 높은 차원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울이 은유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발전된 *theōria*이다.”⁶⁾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 또한 주목해야 하는 안디옥 주석가의 한 명이다. 그는 디오도르의 갈라디아서 4장의 주석을 훨씬 정교하게 설명한다. 이에 따라 알레고리적 해석의 부당성을 주창하고 테오리아의 긍정적 가능성을 높이 칭송한다. 테오도르에 의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 본문을 알레고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서로 다른 두 원리, ‘율법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를 사용한다고 한다. 먼저, 율법의 원리는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이를 순종하고 이루면서 의로움을 이루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속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의로움과 관계가 멀고 율법을 이루려는 사람은 오히려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은혜

6) Froelich, trans. & e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87.

의 원리를 통해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의로움을 설명한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유익과 믿음의 약속이 하나님의 관대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의 하갈과 사라에게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하면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자연에 따라 태어난 ‘자연적 질서’이며 반면 이삭은 은혜에 따르는 약속에서 태어난 ‘참된 탄생’이다. 참된 탄생은 자연 질서에 반대되는 것으로 약속을 주시는 분에게만 있는 능력과 관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용은 해석가의 목적에 맞게 조합하고 율법과 은혜의 독창적 신학을 만들기 위해 인용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바울은 창세기를 읽을 때 역사와 어원과 문맥에 충실하고 있다. “사도는 역사를 없애지 않으며, 오래 전 일어난 사건을 다듬지도 않는다. 사도는 사건을 일어난 그대로 말한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자신의 이해에 적용한다.”⁷⁾ 테오도르는 바울이 구약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동떨어진 은유적 도구를 사용하여 본문을 이해하였다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처럼” 또는 “~같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본문에 나타난 두 여인의 이야기의 역사적 상황은 그리스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유사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것임을 설명한다.

이어 테오도르는 성경해석에서 역사적 근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를 한층 고조된 어조로 주장한다. 그는 알레고리적 해석가들에게 적대적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알레고리적해석은 “영적해석”이라는 명목 하에 성경의 실재성이 사라지게 만든다. 이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다. 은유적 해석을 거치고 나면 “아담이 아담이 아니고, 낙원은 낙원이 아니고, 뱀은 뱀

7) Theodore of Mopsuestia, *Commentary on Galatians 4:22-31. in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ed. 크리스토퍼 홀, 『교부들과 함께 성경읽기』, 이경식·우병훈 역, 308에서 재인용.

이 아니게 된다.” 성경본문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알레고리적 주석가들은 역사와 상관없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문자들로부터 심오한 어떤 것(“영적인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므로 심오한 어떤 것(“영적인 것”)을 발견할 능력이 주어졌다고 믿는다.⁸⁾ 이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며 복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테오도르는 알레고리적 주석가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도전을 준다. “누가 최초의 인간을 창조했는가?” “불순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육신이 일어났는가?” 알레고리적 해석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필요가 없다. 상징적 표현으로 충분하다. 그들에게는 뱀도 없고 하와도 없고 타락사건도 없다. 그렇다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될까봐 … 나는 두려워하노라.”(고후 11:3)라는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테오도르는 바울이 얼마나 성경의 역사적 실재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는가를 보여 준다. “사도는 분명 고대 저술가의 역사적 이야기를 진리로서, 오직 진리로서 사용한다.”⁹⁾ 바울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구원의 성취는 모든 자연적 질서와 이성을 초월하여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귀한 것이다. 옛것과 새것, 즉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하갈과 사라를 가장 적절한 비교대상이 되고도 남았기에 바울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옛 언약을 대표하는 하갈과 이스마엘, 복음과 은혜를 대표하는 사라와 이삭, 이 둘의 비교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은총으로만 실현되는 구원의 약속을 극대화 시킨다.

흥미로운 것은 테오도르는 구약 이야기들 중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음을 말한다. 이를테면 스가라의 스투바벨에 관한 말은 역사적 사실과

8) Froecllich, trans. & e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96.

9) Froecllich, trans. & e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97.

는 관계가 적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해석될 때 그것은 참이 된다고 한다.¹⁰⁾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표현함에 있어 과장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음을 인정하면서 독자들은 이러한 과장된 방식으로 인해 너무 신비스러워 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말 것을 주의시킨다. 테오도르는 성경의 과장된 표현의 예를 든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한 표현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알려 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과장되게 말한 것이다. 한편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 혈통의 영구성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 또한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과장이다. 테오도르에 의하면 과장은 허구가 아니다. 비역사성도 아니다. 과장된 표현들의 실재성과 역사성은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실재적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에 의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 이방에 대한 복수, 세상에 이루어질 평화는 스룹바벨에 대한 스가라의 과장된 표현이며 그 표현들이 예수에 적용될 때 적절하며 옳은 것이 된다.

혹자는 테오도르의 과장된 표현에 대한 인식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적 해석과 굳이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물론 테오도르는 알레고리적 주석가들처럼 성경이 여러 층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향하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의미인 *theōria*를 발견하는 것일 뿐 알레고리적 해석은 아니다. 오리겐 같은 알레고리적 주석가들은 텍스트의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다 역사성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러나 테오도르와 같은 안디옥 주석가들은 모형론적(*typology*) 해석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적 표현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역사성을 초월하며 복음적 메시지를 전달할 시도는 결코 반대하였다. 스가라의 스룹바벨과 연결된 예언들은 역사적 인물 스룹바벨과 직접 연결

10) Froelich, trans. & e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98.

됨과 동시에 (그러나 과장되게)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스기라는 스룹바벨을 통해 바벨론 유수 이후 남왕국의 지도자로서 수행한 핵심역할을 표현하면서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예언의 완성을 소망하게 한다. 스기라는 곧 오실 더 위대한 인물을 의도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오리겐을 정점으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와 씨름하였음을 알고 있다. 이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을 때 성경은 개연성이 없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구절들이 많아 독자들을 혼란하게 한다고 주저 없이 주장하였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은 성경해석의 구제책으로 은유적 해석에 기댔다. 그러나 안디옥 학파의 주석가들은 이러한 은유적 해석을 난해한 성경본문해석의 도피적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끝까지 본문의 역사적 문헌적 해석에 충실한 노력을 보였다.

:: 채승희 경북대학교(B.S.)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와 Union Theological Seminary-PSCE(Ph.D.)에서 역사신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가나안교회(분당 구미동) 부목사이며,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신학교에 출강하고 있다.